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이 인 희\*\* · 최 희 정\*\*\*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북한을 탈북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인원이 약 2만 9천여명 정도(Ministry of Unification, 2016)이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제 3국, 주로 중국이나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권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자 수도 많다고 한다(Rho & Won, 2009). 이들이 한국으로 탈북하는 이유는 외부사회에 대한 정보획득과 이에 따른 가치관 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심각한 식량난과 경기침체로 인한 미래에 대한 희망감 상실 등이 주원인이다(Rho & Won, 2009).

북한이탈자들의 수가 증가되면서 우리사회도 정착지원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이들의 생활상태는 우리나라 일반국민 평균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6). 북한이탈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먼저 12주 동안 하나원에서 머문다. 이곳은 사회적응을 돕는 시설로써, 탈북자들의 정서안정과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도록 하며, 사회적

자립 동기 등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을 한다(Song & Kim, 2015). 그러나 하나원에서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사회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ho & Won, 2009). 그 심리적 원인으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과 정체성 혼란, 한국 사회에서 지각하는 차별감,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북한에 있는 가족, 친지가 받게 될 처벌로 인한 죄책감, 좌절감, 우울, 불안 등이 있다(Rho & Won, 2009). 또한 사회적 관계망 부족, 언어문제로 겪는 곤란, 대인관계, 북한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Lee & Bae, 2006), 이것으로 인해 우울한 정서상태가 유지되면서 한국 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Lee, 2006).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낮은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Jang, 2009). 또한, 다른 원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신체건강 수준이 남한 일반 주민보다 낮고(Kang, 2010), 근골격계 질환과 위장관계 질환 등의 신체적 건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0). 북한

\* 본 논문은 제1저자 이인희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제한 것임.

\*\* 메가병원 간호부장

\*\*\* 가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daunj@hanmail.net)

• Received: 25 June 2017 • Revised: 31 July 2017 • Accepted: 8 August 2017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oi, Hee Jung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60 Samgye-dong, Gimhae-si, Gyeongnam, Korea (Zip code: 700-422)

Tel: 82-55-330-1189 FAX: 82-55-330-1142 E-mail: daunj@hanmail.net

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은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도와 줄 수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이나 구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ang, 2010). 따라서 신체적 건강문제가 사회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사회적응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사회 전체 문제로 보아야 한다(Jang, 2009).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지속하지 못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Ha, 2009),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과 탈북자의 자살비율이 16.3%라는 사실(Song & Kim, 2015)은, 더욱 심각한 이차적인 문제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Kang, 2010), 가족이 같이 온 경우 사회적응이 더 빨랐다(Chin & Lee, 2007). 또한 우울과 불안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사회적응이 높아지는 상관관계(Rho & Won, 2009)를 보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Ha, 2009), 경제활동에 중점을 준 정착장애요인(Kang, 2010)에 대한 연구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한 유병률(Kim, Jeon, & Cho, 2010), 우울성향에 대한 연구(Han, 2001) 등이 있지만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희망은 인생의 위기상황에서 개인의 대처능력을 활성화시키고(Tae & Kim, 2009) 자신이 세운 목표나 요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기대이다(Jin, Kang, & Eom, 2013). Kim과 Cho (2015)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희망과 사회심리적 적응이 중간 정도의 정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학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이다. 희망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응에 정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나 북한이탈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에 대한 연구를 찾아 볼 수가 없어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자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희망이 사회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사회와 나아가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응을 돕는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희망, 사회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희망, 사회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하나센터를 거쳐 G와 C시에 거주한지 6개월 이상 된 만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56명이었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크기의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을 투입하여 예측변수 16개에 해당되는 표본수는 123명이었다. 그러나 탈락률을 고려해 설문지는 200부를 배부하였고, 이중 170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14부를 제외하여 최종 156부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86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11문항, 우울 21문항, 불안 20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희망 12문항, 사회적응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우울

우울에 대한 측정 도구는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 (1961)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Lee와 Song (1991)이 번안한 도구로 원저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총 21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문항 질문에 따라 0점: 그렇지 않다 ~ 3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범위는 0점에서 6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번안도구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 2) 불안

불안에 대한 측정 도구는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 (1970)이 개발한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Kim과 Shin (1978)이 번안한 도구로 원저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재상태의 불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태불안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20문항이었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대단히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긍정적인 문항(1, 2, 5, 8, 10, 11, 15, 16, 19, 20)은 역으로 환산하였고, 총 범위는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번안도구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 도구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을 Jeon (1974)이 번안한 도구로 원저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총 1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문항(3, 5, 8, 9, 10)은 역으로 환산하였고, 총 범위는 1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고, 번안도구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77이었다.

#### 4) 희망

희망에 대한 측정 도구는 Herth (1992)가 개발한 Herth Hope Index (HHI)를 Youn (2004)이 번안한 도구로 원저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총 12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문항(3, 6)은 역으로 환산하였고, 총 범위는 12점에서 4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고, 번안도구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5이었다.

#### 5) 사회적응

사회적응에 대한 측정 도구는 Jang과 Kim (2001)이 개발한 도구로 원저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총 12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 범위는 12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K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IRB-12호)을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8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경남지역의 G시와 C시의 북한이탈주민 관할경찰서와 북한이탈주민자치협의회를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다. 기관장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탈주민 모임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한 자를 연구 대상자에 포함 시켰다. 자가보고 방식으로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필요시 일대일 설명을 통해 설문지 작성을 도왔고, 개인의 설문지 작성시간은 20분 내외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의 차이는 One way ANOVA, t-test,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하였다.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희망, 사회적응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희망, 사회적응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 단계적 회귀분석(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사회적응과 유의성을 보인 가족, 건강상태(사후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건강하다와 건강하지 않다고 변수 전환), 직업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불연속변수는(가족, 건강, 직업) Dummy변수로 전환하여 각 값을 '1', '0'으로 바꾸었으며,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희망 변수를 투입 한 후 다중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간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40~.87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2.52~1.26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Du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0로 비교적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67.9%이고, 40~49세 46.2%, 학력은 고졸 62.2%, 종교는 있음이 55.1%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 60.9%,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가 41.0%, 월수입은 100만원~199만원 48.1%, 경제 상태는 보통이다 42.9%, 건강 상태는 보통이다 46.2%, 직업은 비정규직 36.5%, 남한 거주 기간은 3년~4년이 49.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는 가족(F=4.57,  $p=.004$ ), 건강상태(F=4.47,  $p=.005$ ), 직업(F=2.46,  $p=.03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가족구성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사는 군이 혼자 사는 군과 배우자와 사는 군보다 사회적응이 높았고, 건강상태가 보통인 군이 매우 건강하지 않은 군보다 사회적응이 높았다(Table 1).

### 2.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희망 및 사회적응 정도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20.09±13.00점(0.96±0.14점), 불안은 평균 47.58±9.27점(2.38±0.89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1.88±5.62점(3.18±0.98점)이었고, 희망은 평균 30.77±6.29점(2.56±0.86점), 사회적응은 평균 36.20±8.19점(3.02±1.04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of Depression, Anxiety, Self Esteem, Hope and Social Adjustment (N=156)

Variable	M±SD	Range
Depression	20.09±13.00	0~63
Anxiety	47.58±9.27	20~80
Self esteem	31.88±5.62	10~50
Hope	30.77±6.29	12~48
Social adjustment	36.20±8.19	12~60

### 3.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희망 및 사회적응 간의 관계

대상자의 우울과 불안( $r=.47$ ,  $p<.001$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 $r=.48$ ,  $p<.001$ ), 희망과 사회적응( $r=.43$ ,  $p<.001$ )은 중간정도의 정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울과 자아존중감( $r=-.47$ ,  $p<.001$ ), 우울과 사회적응( $r=-.36$ ,  $p<.001$ ), 불안과 사회적응( $r=-.46$ ,  $p<.001$ )은 중간정도의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희망( $r=.66$ ,  $p<.001$ )은 강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고, 불안과 자아존중감( $r=-.70$ ,  $p<.001$ ), 불안과 희망( $r=-.62$ ,  $p<.001$ )은 강한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우

Table 1. Social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50 (32.1)	36.48±6.14	0.33	.738	
	Female	106 (67.9)	36.06±9.02			
Age (yr)	20~29	14 (9.0)	36.14±7.74	1.00	.407	
	30~39	32 (20.5)	35.43±6.25			
	40~49	72 (46.2)	37.45±8.71			
	50~59	28 (17.9)	34.00±9.52			
	≥60	10 (6.4)	35.80±5.80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2 (1.3)	35.00±4.24	2.01	.096	
	Elementary school	5 (3.2)	38.40±12.12			
	middle school	18 (11.5)	34.50±9.93			
	High school	97 (62.2)	35.28±7.06			
Religion	≥College	34 (21.8)	39.47±9.23	1.17	.241	
	No	70 (44.9)	35.37±6.63			
Marital status	Yes	86 (55.1)	36.87±9.25	2.64	.074	
	No	42 (26.9)	33.79±6.76			
	Married	95 (60.9)	36.94±8.67			
Family	Other	19 (12.2)	37.84±7.90	4.57	.004	c)a, b
	Alone <sup>a</sup>	50 (32.1)	34.14±6.94			
	Spouse <sup>b</sup>	25 (16.0)	33.12±8.83			
	Spouse and children <sup>c</sup>	64 (41.0)	38.63±8.54			
	Other(with peer) <sup>d</sup>	17 (10.9)	36.20±8.19			
Monthly Income (10,000 KRW)	50~99	41 (26.3)	34.54±8.05	1.42	.239	
	100~199	75 (48.1)	36.04±7.91			
	200~299	30 (19.2)	37.93±7.28			
	≥300	10 (6.4)	39.00±12.28			
Economic status	Very low	23 (14.7)	32.70±7.52	1.77	.156	
	Low	51 (32.7)	37.29±8.57			
	Middle	67 (42.9)	36.48±7.23			
	High	15 (9.6)	36.60±11.01			
Health status	Very bad <sup>a</sup>	22 (14.1)	31.27±8.32	4.47	.005	c)a
	Bad <sup>b</sup>	54 (34.6)	36.87±7.80			
	Fair <sup>c</sup>	72 (46.2)	37.65±7.92			
	Good <sup>d</sup>	8 (5.1)	32.13±7.92			
Job	Full-time	50 (32.1)	35.19±8.43	2.46	.035	
	Temporary	57 (36.5)	42.75±8.16			
	No	49 (31.4)	38.14±7.40			
Duration in south korea (yr)	0.5~2	27 (17.3)	33.89±7.17	0.92	.431	
	3~4	77 (49.4)	36.56±7.53			
	5~6	36 (23.1)	36.58±8.74			
	≥7	16 (10.3)	37.50±11.28			

울과 희망( $r=-.27, p<.001$ )은 약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 4. 대상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17$ )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안( $\beta=-.15$ ), 우울( $\beta=-.15$ ), 희망( $\beta=.14$ ), 직업(비정규직)( $\beta=-.10$ ), 건강상태(건강하지 않다)( $\beta=-.07$ ), 직업(없음)( $\beta=-.04$ )으로서 7개 변수가 유의한 예측변

Table 3.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xiety, Self Esteem, Hope and Social Adjustment (N=156)

Variable	Depression	Anxiety	Self Esteem	Hope	Social Adjustment
	r (p)	r (p)	r (p)	r (p)	r (p)
Depression	1				
Anxiety	.47 (<.001)	1			
Self esteem	-.47 (<.001)	-.70 (<.001)	1		
Hope	-.27 (<.001)	-.62 (<.001)	.66 (<.001)	1	
Social adjustment	-.36 (<.001)	-.46 (<.001)	.48 (<.001)	.43 (<.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Social Adaptation (N=156)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31.30	8.62		3.63	.001
Health status (Bad)*	-1.09	1.19	-.07	-0.92	.009
Job (Temporary)*	-0.87	0.72	-.10	-1.21	.031
Job (No)*	-0.23	0.48	-.04	-0.48	.014
Depression	-0.10	0.05	-.15	-1.83	.042
Anxiety	-0.13	0.09	-.15	-1.42	.026
Self esteem	0.24	0.16	.17	1.54	.001
Hope	0.18	0.13	.14	1.39	.035
R <sup>2</sup> = .32, Adj.R <sup>2</sup> = .28, F = 7.79, p < .001					

\*Dummy variable (1: Yes, 0: No)

수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을수록, 우울 낮을수록, 희망이 높을수록, 직업이 비정규직이 아닐수록, 건강할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사회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28%였다(F=7.79, p<.001)(Table 4).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정착할 때,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찰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을 돕는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적응은 중간 정도였으며, 이는 Chin과 Lee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Rho와 Won (2009)의 연구결과는 중간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달랐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 되는 사람이 82.7%였

으며, Rho와 Won (2009)의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자가 3년 미만이었다. 국내 거주기간이 사회적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가족과 건강 상태로 나타났다. 가족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군이 혼자 있는 군과 배우자와 있는 군보다 사회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in과 Lee (2007)의 연구결과 가족동거 여부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달랐으나 미성년자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 사회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것을 고려한 연구는 미흡하여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건강 상태는 보통인 군이 매우 건강하지 않은 군 보다 사회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Kang, Ha과 Eun (2012)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자 81.3%가 관절염과 디스크, 위염 및 위궤양, 불면증과 불안, 만성두통 순으로 질환

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가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건강문제에 초점을 맞춘 근골격계, 소화기계 및 정신건강에 대한 자기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이 정규직일 때 사회적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생활력의 지표가 되므로 (Lee & Bae, 2006),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문제로 우리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면 여러 정서적 문제와 자살 등이 발생할 수 있다(Yoon & Kim, 2005). 따라서 취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이나 실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중간 이하로서 이는 Park (2006)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불안 정도도 중간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는 Rho와 Won (2009)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Cho, Jeun, Yu와 Um (2005)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요인을 3년간 추적한 결과 조사당시보다 3년 후의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동안 취업, 문화적응, 대인관계, 경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우울수준을 높이고(Cho et al., 2005), 불안, 무기력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유지되면서, 이것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하였다(Han, 2001).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개입,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는데, Rho와 Won (2009)의 연구결과는 중간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더 높았고, Chin과 Lee (2006)의 연구결과는 중간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더 낮았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다(Chin & Lee, 2006). 그러나 북한이탈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편견이 이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능력, 자신감 결여를 발생시키고 자아존중감 저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Cho et al., 2005).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희망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는데, 희망이란 행위지향적인 긍정적인 기대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로서 자신을 위한 목표나 요구가 달성되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Herth, 1992).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는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불안은 중간 정도의 정상관관계, 우울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사회적응은 중간 정도의 역상관관계로 나타났다. Rho와 Won (2009)의 연구결과는 우울과 불안은 유의한 상관성이 없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자아존중감은 중간 정도의 역상관관계, 우울과 사회적응은 약한 역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우울과 희망은 약한 역상관관계, 불안과 희망은 강한 역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희망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Tae & Kim, 2009) 한 결과 우울과 희망이 중간 정도의 역상관관계로 나타난 것과 희망과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Kim & Cho, 2015)에서 희망과 불안감이 중간 정도의 역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불안과 자아존중감은 강한 역상관관계, 불안과 사회적응은 중간 정도의 역상관관계로 나타났다. Rho와 Won (2009)의 연구결과는 불안과 자아존중감, 불안과 사회적응이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 희망과 사회적응은 중간 정도의 정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 희망은 강한 정상관관계로 나타났다. Rho와 Won (2009)의 연구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은 중간 정도의 정상관관계로 나타났고, Kim과 Cho (2015)의 연구도 희망과 사회심리적 적응이 중간 정도의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면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자기통제, 계획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되고(Park, 2006), 희망은 새로운 목표달성을 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Kim & Cho, 2015). 자아존중감과 희망이 높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에 적응하는데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자아존중감이었고, 그 다음은 우울, 불안, 희망, 직업(비정규직), 건강상태(건강하지 않다), 직업(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8%였다. Jang (2009)의 연구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잘 하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자신감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Chin & Lee, 2006). 그러나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낮춘다(Cho et al., 2005)고 하였으므로, 이들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불안과 우울이 낮을수록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불안과 우울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불안과 우울을 발생시켜 이것이 사회적응을 어렵게 한다(Yoon & Kim, 2005)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Kim 등(2010)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불안과 우울 유병률이 48%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우 근로능력이 떨어지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어 더욱 사회적응이 어렵다고 하였다. 탈북자들의 자살비율도 16.3%이고 사회 범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정신적 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Yoon & Kim, 2005). 따라서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보건 상담 등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과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희망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Kim과 Cho (2015)의 연구에서 희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삶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삶을 유지시켜 준다(Kim & Cho, 2015). 그러나 희망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비정규직이 아닐수록, 건강할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사회적응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ang (2009)의 연구결과도 정규직일수록 사회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았다. 안정되고 전문적인 직장에 근무할 때,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직업의 불안정은 경제적인 자립과 자활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하여 사회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Kang, 2010). 또한 건강할수록 사회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Kang (2010)의 연구에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해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

아 안정적인 정착을 위협한다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듯 건강문제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활동은 우리사회 정착과 사회적응이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 증진시키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 사회에 조기적응을 하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불안, 우울, 희망, 직업, 건강상태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이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정신과 신체적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추후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도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데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희망, 비정규직이 아닐수록, 건강, 직업 없음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첫째, 북한이탈자들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희망은 긍정적인 정서로서 사회적응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입국 후 하나원에서 첫 12주 동안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이들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자들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의 받아들이도록 하는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건강한 일원으로



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신적 건강문제와 신체적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이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알 수 있도록 취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이나 실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7*(4), 561-571.
- Chin, M. J., & Lee, S. H. (2006). Social-cultur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self-esteem and internal attribu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7), 141-152.
- Chin, M. J., & Lee, S. H. (2007). The family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socio-cultur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5), 63-74.
- Cho, Y. A., Jeun, W. T., Yu, J. J., & Um, J. S. (2005).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 3-year follow-up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2), 467-484.
- Han, I. Y. (2001). Depression traits of North Korean defecto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11*(6), 78-94.
- Ha, Y. S. (2009).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and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Political Science Society, 17*(1), 125-141.
- Herth, K. (1992). Abbreviates instrument to measure hop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vance Nursing, 14*, 743-753.
- Jang, H. K., & Kim, Y. R. (2001). Family stability and social adjustment and the role of women by family of North Korean defectors. *Women's Studies Forum, 60*(17), 175-199.
- Jang, K. Y. (2009).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f North Korea defectors on their 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15*(2), 165-195.
- Jeon, B. G.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11*(1), 107-130.
- Jin, E. Y., Kang, M. J., & Eom, T. W. (2013). A study on adaptation in South Korea society of adolescents moved from North Korea : The rebirth toward hope from helplessness. *Youth Culture Forum, 34*, 121-152.
- Kang, C. G. (2010). North Korean refugee supporting policy based on barrier factor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53*, 261-290.
- Kim, B. C. (2010). *North Korean Defectors panel study (Economic adaptation-mental health-physical health)*. Seoul: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 Kang, Y. S., Ha, Y. M., & Eun, Y. (2012). Health status and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of North Korean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3), 231-243.
- Kim, J. T., & Shin, D. G. (1978). A study based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STAI for Korea. *The New Medical Journal, 21*(11), 69-75.
- Kim, M. J., & Cho, H. I. (2015).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 and adjustment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9*(2), 331~360. <http://dx.doi.org/10.17286/KJEP.2015.29.2.08>

- Kim, Y. H., Jeon, W. T., & Cho, Y. A. (2010). A study on to prevalenc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recent migrant North Koreans: A focus on 2007 entrants.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19(2), 141-174.
- Lee, K. Y., & Bae, S. W. (2006).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15(2), 1-28.
- Lee, S. M. (2015). The effect of variables an the North Korean refugees' quality of life. *Journal of Diaspora Studies*, 9(1), 155-187.
- Lee, Y. G., & Song, J. G. (199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bd MMPI-D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98-113.
-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North Korean refugees residential settlement support manual 2016. Retrieved November 25, 2016,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66&mode=view&cid=46899>
- Park, S. S. (2006). *A study on the life str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status of saeteomins in Gwangju city and jeonnam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nam.
- Rho, I. S., & Won, J. S. (2009). The relations of depression, anxiety, post-traumatic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adjustment among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1), 69-77.
- Rog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STAI: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ong, U. S., & Kim, M. S. (2015).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relation to their adjustment in the South Korean society: Focus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ir self-efficacy. *The Journal of Pubic Policy & Governance*, 9(1), 54-90.
- Tae, Y. S., & Kim, M. Y. (2009). Influencing factors on hope among patients with breast cancer. *Journal Korean Oncology Nursing*, 9(2), 86-94.
- Yoon, I. J. & Kim, S. (2005). Health and medical car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ealth and Social Science*, 17, 149-182.
- Youn, S. J. (2004). *The effects of forgiveness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n forgiveness and mental health in patients with advanced women canc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Busan.

## Factors Influencing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Lee, In Hee** ( Department manager of Nursing, Mega Hospital)

**Choi, Hee Ju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Purpose:** The aim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participants were 156 North Korean defectors over 20 years old residing in G and C cite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1 to October 31, 2014,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with one-way 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Result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family, health status, and job,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adjustment. The level of depression and anxiety was less than moderate and the levels of self-esteem, hope, and social adjustment were moderate. The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hope, and social adjustment were significant. These variables showed an explanation rate 28% and self-esteem ( $\beta=.17$ ), depression ( $\beta=-.15$ ), anxiety ( $\beta=-.15$ ), hope ( $\beta=.14$ ), job (temporary)( $\beta=-.10$ ), health status (bad)( $\beta=-.07$ ), job (no)( $\beta=-.04$ )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social adjustment. **Conclusion:** A program of nursing intervention is needed to care for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as well as social education to reduce the negative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Key words : Anxiety, Depression, Self concept, Hope, Social adjustment

\* This article is an extrac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University.